

# 2016년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동향 평가 및 2017년 전망

이종규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jklee@kdi.re.kr

## I. 머리말

2016년 북한은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제가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5년 북한경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1.1%)을 경험했기 때문에 침체가 2년 연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주민들을 노력 동원하는 데 집중했고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한 부양책은 정치적·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2017년 북한 당국의 정책적 고민은 조금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통계적으로 드러난 부분에서의 침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비공식부문(시장)에서의 성장은 2016년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던 시장 물가 및 환율, 그리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대한 외부세계의 다양한 관찰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이러한 비공식부문의 역할은 외화수급 측면에서 북한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력 동원을 통한 인위적 부양으로 대표되는 2016년 북한의 주요 경제조치(70일 전투, 200일 전투)의 흐름을 살펴보고, 물가·환율 동향과 비공식부문에서 관찰된 흥미로운 현상들을 간단히 해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제한된 데이터나 정보로 인해 분석에 한계는 존재하지만 2017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당국의 고민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 II. 정책기조: 자강력 제일주의

### 1. 자강력 제일주의의 배경

김정은 집권 직후 북한은 대외부문(무역과 투자)과 내수부문(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특히 무역채널의 다변화, 수출품목의 다양화, 특수경제지대를 통한 해외투자 유치 확대 등 대외경제 상황 개선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외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까지 강화되자 대외적인 측면보다는 내수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북한의 국내 시장(비공식부문)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동안(2011~14년) 북한의 플러스 성장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정책기조가 내수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환된 시점은 2015년이었는데, 이때부터 자강력 제일주의가 경제정책의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sup>1)</sup>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모든 공장·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한 이후 각 매체들에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산화를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수입병은 자강력을 해치는 악성종양과 같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들도 자주 관찰된다.<sup>2)</sup> 이러한 압박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2015년 북한의 전체 수입은 약 20% 감소하기도 했다(KOTRA 기준).

이렇게 자강력 제일주의가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에 있어 전면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중국의 경기침체,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등으로 인해 대외부문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하면, 대외부문에서의 실적 부진에 대한 이유를 외부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봉철(2016, p.7)<sup>3)</sup>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적 봉쇄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현실은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국산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으며, 서성일(2016, p.9)<sup>4)</sup>은

1) 이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강조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황철(『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6년 제2호, 2016, p.80)은 “경제규모가 커져 기업체들의 수가 늘어나고 생산자 대중의 열의와 기업체 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의 기능들을 기업체에 넘겨주어 기업체 자체로 경영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채고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보다는 이들을 관리하는 쪽에 무게를 둔 ‘자강력 제일주의’에 집중하는 듯하다.

2) 『노동신문』, 「신년사 김정은」, 2017. 1. 1.

3) 지봉철, 「국산화를 중핵으로 한 우리의 현대화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중요 요구」, 『경제연구』, 2016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4) 서성일, 「자강력 제일주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기 위한 근본 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6년 제1호, 사회과학출판사, 2016.

“오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그것을 가로막는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 동과 겹쌓이는 애로와 난관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을 성과적으로 뚫고 나가자면 전체 군대와 인민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외화수급에 대한 고민도 엿볼 수 있는데, 리순철(2016, p.3)<sup>5)</sup>의 경우 “자신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수입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약화시키고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심을 조장시키며 외화의 지출을 증대시킨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2. 국산화를 통한 자강력 제일주의의 실현

구체적으로 자강력 제일주의는 국산화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류영철(2016, pp.3~4)<sup>6)</sup>은 자강력 제일주의가 중요한 것은 “설비, 원료, 원자재를 국산화하여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그쳐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 담보로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설비,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것, 이것이 공장, 기업소 현대화에서 중핵이며 기본 지표이다.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화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남의 설비를 사다가 생산공정을 조립하는 것은 현대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전옥실(2016, p.32)<sup>7)</sup>은 “우리는 국산화의 비중을 높일 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식의 현대화, 자력갱생에 기초한 국산화를 적극 실현해 나감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적극 다그쳐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으며, 조길현(2016, p.81)<sup>8)</sup>은 “첨단기술설비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수출제한조치가 날로 악랄해지는 환경에서 자체의 경제력을 강화하자면 결정적으로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경제 건설의 기둥이 되고 경제의 생명선으로 되는 기간공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부터 원료, 연료의 국산화부터 실현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북한의 매체들은 국산화의 대표적인 예로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 마그네샤크링카 생산의 주체화 실현, 석탄가스화에 의한 비료 생산공정 확립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5) 리순철, 「자립적 민족경제와 대외무역의 호상관계를 밝혀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적 업적」, 『경제연구』, 2016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6) 류영철, 「자강력 제일주의는 경제강국 건설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방도」, 『경제연구』, 2016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7) 전옥실, 「자력갱생에 기초한 국산화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성과적 실현을 위한 중요한 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6년 제3호, 사회과학출판사, 2016.

8) 조길현,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6년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사실은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정춘심(2016, p.71)<sup>9)</sup>의 경우 순차적인 국산화를 강조한다. 즉,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국산화해야 할 품목과 수입해야 할 품목을 선정하고, 국산화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입허가제와 관세 부과 등을 활용하는 것을 주장한다.

먼저 수입허가제는 “수입물자들에 대하여서는 국산화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를 따져 보고 국가계획위원회와 대외경제성을 비롯한 해당 위원회, 성의 일군들과 기술자, 전문가들을 광범히 인입하여 전면적으로 검토 심의한 기초우에서 수입허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무역단위들이 국가기관의 수입허가를 받고 무역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장, 기업소들이 능히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 국산화하여야 할 설비나 원료자재들을 수입에 의존하려고 하는 현상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관세공간의 이용은 “내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마그네슘크링카, 철광석, 강재, 기중기, 자동차, 다이아 등 설비·원료자재들의 수입에 우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국산화되어야 할 설비, 원료자재들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관세를 높이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관세를 부과하여도 계속 다른 나라에서 국산화하여야 할 물자들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즉,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 국산화 가능 여부에 따라 관세를 차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국산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종합하자면, 무역거래를 실행하는 경제주체들이 특정 물품을 수입하려고 할 때 이를 북한 당국이 허가하거나 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수입을 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비공식부문에서의 자본을 공식부문으로 흡수하는 채널을 공식화·제도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 III. 정책 추진: 노력 동원을 통한 인위적 부양

자강력 제일주의가 2015년 국산화를 중심으로 나타났다면, 2016년에는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라는 노력 동원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는 5월에 실시된

9) 정춘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6년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제7차 당 대회<sup>10)</sup> 전후로 실시되었는데, 전자가 당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 동원이었다면, 후자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 동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성장하는 방법<sup>11)</sup>은 과거 북한이 경제가 어려워졌다거나 무리하게 성과를 달성해야 할 때 내세웠던 방법이었는데, 2016년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노력 동원은 건설부문의 속도전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강명흡(2016, p.4)<sup>12)</sup>은 “우리는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고 아침과 저녁으로 강산이 변하도록 최대의 속도로 비약하고 또 비약함으로써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목표들을 최단 기간 내에 점령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며, 김영홍(2016, p.20)<sup>13)</sup>은 “지금이야말로 증산경쟁, 실력경쟁을 비롯한 사회주의 경쟁을 보다 진공적으로 본때 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김정은은 “건설부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발전소와 공장, 교육문화 시설과 살림집들을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로 일떠세워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건설업 성장률은 4.8%를 기록했는데,<sup>14)</sup> 2016년의 속도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추세는 유지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 70일 전투(2016. 2. 24~5. 2)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전개된 70일 전투는 제7차 당 대회(5월) 이전 ‘충정의 전투’로 명명되었으며,<sup>15)</sup>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벌이는 ‘사상전’이라는 점이 크게 강조되었다.<sup>16)</sup> 노동신문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충정의 70일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한 쫓겨모임들이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들에서 진행되었다.”<sup>17)</sup>라고 밝히는데, 이를 통해 70일 전투의

10) 자강력 제일주의는 2016년 5월에 열린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북한의 중장기 차원의 경제전략 중 하나로 선포되기도 했다. 강명흡(2016, p.3)은 “당 제7차 대회의 기본정신에는 자강력 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 로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려는 우리 당의 구상이 담겨져 있다. 자강력 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혁명정신이다.”라고 했다.

11)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키는 데는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면서 이를 위해 “우선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생산과정 밖에서 놓고 있는 유휴 자재, 설비, 노력을 찾아내어 생산에 동원함으로써 리용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며 생산과정에 투입된 요소들의 효과성 수준을 기준수준에까지 끌어 올려 기준 수준을 초과하는 방향에서 끊임없이 갱신하여 리용효과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리기성, 『경제강국건설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 문제』, 『사회과학원학보』, 2016년 제1호, 사회과학출판사, 2016)

12) 강명흡,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의 기본정신』, 『사회과학원학보』, 2016년 제2호, 사회과학출판사, 2016.

13) 김영홍, 『현 시기 사회주의 경쟁을 힘 있게 벌리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2016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14) 『연합뉴스』, “북한 작년 GDP 1.1% 감소 추정... 5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2016. 7. 22.

1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편지에서 역사적인 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충정의 70일 전투를 벌릴 것을 열렬히 호소하였으며,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전체 당원들이 이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데에 대하여”(『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혁사적인 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를 벌릴 것을 호소』, 2016. 2. 26).

16) “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오늘의 70일전투는 전민군민을 우리 당의 굴함 없는 공적적인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기 위한...자력자강으로 추켜세우고 일대 사상전이다.”, “소개선전사업을 강화하여 경쟁열풍을 일으키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과감히 전개되도록 해야한다.”고 보도(『노동신문』,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사상전의 포성을 더 높이 울리자』, 2016. 2. 29).

17) 『노동신문』, “충정의 70일 전투 기록장에 영웅적헌신과 눈부신 기적창조의 위훈을 아로새기자, 각지 농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들에서 쫓겨모임 진행.», 2016. 3. 4.

참여 범위는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교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70일 전투의 종합적인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조선신보』<sup>18)</sup>에서는 “총정의 70일 전투에서 기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의 근로자들과 일군들이 전례없는 노력적 위훈을 세웠다.”라고 보도했으나, 어떠한 성과를 거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되지 않았다. 또한 『노동신문』<sup>19)</sup>은 “70일 전투의 철야진군이 시작되어 예술단체, 예술선전대 예술인들은 연 270여 개 주요 전투장들에서 59만여 명을 대상으로 430여 차의 경제 선동활동 진행되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다.

다만, 북한 매체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인데,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재령광산,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남흥청년연합기업소, 철도운수, 평성석탄공업대학 등에서의 목표 초과 달성 사례가 산발적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모두 부분적인 효과일 뿐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표 1> 70일 전투의 부문별 성과: 북한 매체의 보도를 중심으로

『노동신문』 (2016. 4. 5)	<p>&lt;70일 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기적창조로 영웅적위훈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주체철 생산계획을 각각 190%, 196%, 213% 초과 완수, 70일 전투 3월 주체철 생산목표도 초과 달성”</li> </ul> <p>&lt;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총돌격, 총매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령광산) “70일 전투가 시작되어 단 24일만에 쇄돌 생산목표를 강행 돌파, 상반기 쇄돌 생산계획 100.5% 넘쳐 수행”</li> </ul> <p>&lt;30만산 대발파 성과적으로 진행&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간석지 건설자들이 흥선도 간석지 건설장에서 30만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li> </ul> <p>&lt;선군시대 인간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의 발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동맹원, 녀맹원) “70일 전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수백 명의 청년동맹원과 녀맹원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진출하였다”</li> </ul>
『노동신문』 (2016. 5. 2)	<p>&lt;당 제7차 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 돌격전에 계속 박차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소 일군, 노동자, 기술자 강조) “남흥청년연합기업소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70일 전투 목표로 내세운 가스발생로 증설공사를 기한 전에 끝내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음”</li> </ul> <p>&lt;승리의 기적소리 높이 폭풍쳐 내달린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운수) “철도운수부문에서 70일 전투기간 100여 만톤의 중요 물동 증송”</li> </ul> <p>&lt;평성석탄공업대학에서 중요 연구과제 빛나게 결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별로 구분하여 연구성과 강조) “평성석탄공업대학의 일군들은 현장일군들과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교원, 연구사들이 빠른 시일 안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li> </ul>

자료: 북한 매체의 보도를 바탕으로 KDI 북한경제연구부에서 정리함.

18) 『조선신보』,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70일 전투에서 빛나는 노력적 위훈을 세운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근로자들과 일군들 앞으로 축하전문」, 2016. 5. 7.

19) 『노동신문』, 「철민식 정치사상사업으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 대표정신을 창조해 나가자」, 2016. 4. 4.

## 2. 200일 전투(2016. 6. 1~12. 15)

북한의 200일 전투는 제7차 당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70일 전투에 이어 곧바로 전개되었다. 지역별 군중대회<sup>20)</sup>가 시작되었으며, 여명거리 등 건설부문에서의 목표는 물론 농업에서의 성과 달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노동신문』<sup>21)</sup>에서는 “총정의 200일 전투에서 대승전고를 먼저 올려야 할 부문은 농업전선이다.”, “오늘의 200일 전투에서 농사를 잘 짓는 것보다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조선』<sup>22)</sup>에서는 “신암, 장산, 동신 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200일 전투의 승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의 성과를 선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일 전투의 방향은 9월 들어 함경북도 일대에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sup>23)</sup>가 발생하면서 피해복구 쪽으로 집중된다. 『노동신문』<sup>24)</sup>에서는 “200일 전투의 주 타격방향, 최전방인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건설용자재와 생활필수품을 실은 배가 원산시 해안광장부두 출항”, 『민주조선』<sup>25)</sup>에서도 “922건설돌격대 인민보안성려단의 내무군인이 북부수해복구 전투의 일환으로 오봉리 진료소 건설 제일 먼저 완료”라고 보도하는 등 함경북도 홍수피해 복구로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200일 전투는 9월부터 대부분의 역량이 수해복구에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시성 건설사업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표 2> 200일 전투의 부문별 성과: 북한 매체의 보도를 중심으로

『노동신문』 (2016. 6. 9)	<자강력 제일주의를 틀어쥐고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200일 전투의 전군길을 힘 있게 다그치자> • (영농전투)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 열풍 일으켜 알곡 생산목표에 기여해야 하는 점을 강조
『노동신문』 (2016. 6. 16)	<농업생산의 과학화, 공업화를 추동해 나가 더 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을> • (농업생산의 과학화) “7차 당대회가 제시한 농업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실현을 위해 200일 전투에 나선 농업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과학농사의 열풍을 이루고 있다.” • (대학교와의 협동연구) “농업생산의 과학화, 공업화를 위해 남포농업대학의 대학일군, 교원, 연구사들은 과학연구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20) “제7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200일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기 위한 군중대회가 황해북도, 양강도와 시, 군, 읍에서 진행”, (기업소와 더불어 정권 농장, 대학, 청년들의 참여 독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여” (『노동신문』, 「자강력 제일주의를 틀어쥐고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200일 전투의 전군길을 힘 있게 다그치자」, 2016. 6. 9).

21) 『노동신문』, 「전당, 전국이 다시 한 번 총동원 앞으로」, 2016. 6. 15.

22) 『민주조선』, 「올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한 기세로 다음 해 농사차비를 힘 있게 다그치자」, 2016. 11. 27.

23) 이 홍수는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태풍 라이언록이 북한 함경북도 지역을 강타하면서 발생했다. 조선중앙방송은 “대재앙이었다.”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수백명에 달하며 6만 8,900여 명이 한지에 나와 있다.”고 보도했다(『머니투데이』, 2016. 9. 15).

24) 『노동신문』, 「건설자재와 생활필수품 최우선적으로」, 2016. 10. 21.

25) 『민주조선』, 「200일 전투의 결승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 다 총동력 앞으로!」, 2016. 11. 27.

<표 2>의 계속

<p>노동신문 (2016. 10. 12)</p>	<p>&lt;총정의 200일 전투의 격전장마다에서 기적창조의 열풍 세차게 끓어 번진다&gt; • (건설공사) “10월 10일까지 600여 세대의 1동 4세대, 1동 2세대 단층살림집 골조공사를 끝냈다.”</p>
<p>『노동신문』 (2016. 10. 21)</p>	<p>&lt;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만리마 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gt; • (기술혁신적 성과) “평안북도에서는 기술혁신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탈곡기들의 난알털기능력을 지난해보다 1.5배 높임”</p>
<p>『민주조선』 (2016. 11. 27)</p>	<p>&lt;200일 전투의 결승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 다 총돌격 앞으로!&gt; • (철생산 부문) “주체철생산계획 매일 120% 넘쳐 수행”</p> <p>&lt;수십 동의 공공건물 건설 완공&gt; • (건설부문) “돌격대원,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학교, 유치원, 진료소를 비롯한 수십 동의 공공건물을 완공하는 성과 이룸”</p> <p>&lt;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gt; • (가공부문 일꾼, 노동자의 열의, 기술기능수준 향상 강조)</p> <p>&lt;부속품 생산성과 계속확대 숙천군농기계작업소에서&gt; • (농기계 부속품, 농산작업 기계화) “작업소 일꾼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부속품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과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p>
<p>『조선신보』 (2016. 12. 19)</p>	<p>&lt;200일전투, 승리적으로 결속/ 당중앙위원회 보도문&gt; • (12. 15 200일 전투 종료) “백두의 공격정신과 자강력 제일주의를 뼈에 새기고 일어나 200일 전투의 모든 전선에서 혁혁한 전과를 이룩” • (수해복구 전투목표 달성)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동원하는 복구작업에도 불구하고 200일 전투 각 방면에서 방대한 전투목표 앞당겨 이룩”</p>

자료: 북한 매체의 보도를 바탕으로 KDI 북한경제연구부에서 정리함.

## IV. 평가 및 전망

자강력 제일주의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대외경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북한으로서는 불가피하게 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였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일이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국내에서의 수요 증대 →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 무역적자의 확대 → 외화 부족 및 외화에 대한 수요 증대’라는 악순환을 끊는 한편,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의도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sup>26)</sup>

국산화를 통해 자강력 제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던 북한의 정책기조는 2016년 5월 당 대회를 전후해서는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와 같은 속도전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26) 김영호(2016, p.24)는 생활필수품 생산을 늘리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수입, 로동보수 원천이 늘어나게 되며 그로 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보수가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품의 가격을 체계적으로 낮출 수 있게 하는 것과 관련된다.”라고 했으며, 조길현(2016, p.82)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물질적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보정할 수 있는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부단히 개선 완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당 대회 이전에는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이후에는 경제정책 측면에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70일 전투의 경우 당 대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우고자 전시성 건설사업에 집중했으며, 200일 전투의 경우 당 대회의 결의를 이어가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으나, 지난 9월 발생한 태풍과 홍수로 인해 함경북도 지역에 대한 피해복구 작업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2016년 북한은 제7차 당 대회 준비와 홍수 피해복구로 인해 1년 365일 중 270일,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각 경제주체들을 노력 동원하는 데에 소모한 셈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북한경제가 불리한 대외적 환경과 외부 충격(국제사회의 제재)을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었던 동력은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인한 효과보다도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장(비공식부문)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더욱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장이 제대로 기능함으로써 물가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는 점이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 당국이 설익은 경제조치를 통해 시장(비공식부문)과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무리하게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시장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김정일 애도기간이 있었던 2011년 4/4분기에는 장마당 통제로 인해 물가와 환율이 바로 전 분기에 비해 각각 56.6%, 48.4% 상승했다.<sup>27)</sup> 또한 2012년 3/4분기 김정일의 새로운 경제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퍼지면서 중개 매매인들과 달러상들이 장마당에 쌀과 외환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물가와 환율이 전 분기에 비해 각각 56.2%, 23.3% 올랐다.<sup>28)</sup> 반면, 대북제재 2094호(2013년)가 시행된 이후의 물가와 환율은 직전 분기에 비해 오히려 각각 11.2%, 2.7% 하락했으며, 대북제재 2270호(2016년)가 시행된 이후에도 물가는 1.4% 하락하고 환율은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즉, 북한의 시장(보다 직접적으로는 장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물가나 환율에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여러 차례의 보도를 통해 나타난 사실이지만, 시장의 비약적인 발전은 자본주의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면 일부 제품에는 시장경제에서 볼 수 있는 회사의 상표가 자주 관찰되었는데, 『조선신보』는 “새롭게 나온 경흥맥주가 봉사망들에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소비자들 속에서 수요가 높아 찾는 사람이 날마다 늘고 있다.”<sup>29)</sup>고

27) 평양, 신의주, 혜산 등 3개 도시에서 관찰된 시장 쌀가격 및 환율을 중심으로 단순 평균하여 계산한 수치이다(자료: DailyNK, 검색일: 2017. 1. 6).

28) DailyNK, <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page=1&catald=#>, 검색일: 2017. 1. 6.

29) 『조선신보』, 「수요가 높은 《경흥맥주》 조선에서 새로운 때기식 통맥주 생산」, 2016. 9. 2.

했다. 또한 평양에서는 소비분과 관련된 사례들이 자주 보도되었는데, 『조선신보』는 “국영사업망의 운영실적은 조선경제 현황을 보여준다. 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평양 제1백화점에 하루 평균 2만명의 손님이 방문한다. 자본주의 나라의 백화점에서 매상고는 이윤 추구하고 결부된 수치지만,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인민봉사의 결과를 나타내는 수치”<sup>30)</sup>라고 했다. 그 외에도 비공식부문의 발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으며, 오히려 외부세계의 학자들은 시장의 발전이 공식부문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6년 북한경제는 양면성을 지닌다. 즉, 농업 생산과 대외무역의 부진으로 전반적인 침체를 겪었던 2015년의 상황에서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침체가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 등 여러 가지 불리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상황이 양호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상당 부분 시장이 원활하게 기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2017년에도 북한의 경제정책은 대외적인 성과보다는 내수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자강력 제일주의와 국산화를 내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과 청년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작년과 같은 지나친 노력 동원은 최근의 성장세를 견인했던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직은 제안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국산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허가제와 품목별 차별적인 관세 부과 등이 실현될 수도 있다. 북한 당국이 궁극적으로는 비공식부문에서의 수익을 공식부문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채널을 제도화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7년 북한 당국은 각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거둔 과실을 공식부문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찾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30) 『조선신보』, 「제재 속에서의 부흥 조선경제, 그 활기와 저력(3) 호평을 받는 상품을 더 많이/ 구매자와 생산자를 잇는 백화점」, 2016. 11. 2.

## 참고문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호.
- 『머니투데이』, 「태풍 ‘므란티’ 대만-중국 강타, 북한은 ‘라이언록’ 사망자 138명」, 2016. 9. 15
- 『연합뉴스』, 「북한 작년 GDP 1.1% 감소 추정... 5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2016. 7. 22.
- 〈북한문헌〉
- 강명흠, 「조선로동당 제7차 당 대회의 기본정신」, 『사회과학원학보』, 2016년 제2호, 사회과학출판사, 2016.
- 김영호, 「인민생활향상에서 사회주의적 분배형태들의 옳은 결합에서 나서는 원칙적 방도」, 『경제연구』, 2016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 김영홍, 「현 시기 사회주의 경쟁을 힘 있게 벌리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2016년 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 류영철, 「자강력제일주의는 경제강국 건설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방도」, 『경제연구』, 2016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 리기성, 「경제강국건설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 문제」, 『사회과학원학보』, 2016년 제1호, 사회과학출판사, 2016.
- 리순철, 「자립적 민족경제와 대외무역의 호상관계를 밝혀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적 업적」, 『경제연구』, 2016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 서성일, 「자강력제일주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기 위한 근본 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6년 제1호, 사회과학출판사, 2016.
- 전옥실, 「자력갱생에 기초한 국산화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성과적 실현을 위한 중요한 담보」, 『사회과학원학보』, 2016년 제3호, 사회과학출판사, 2016.
- 정춘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6년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 조길현,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6년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6.
- 지봉철, 「국산화를 중핵으로 한 우리식의 현대화는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중요 요구」, 『경제연구』, 2016년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항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6년 제2호, p.80, 2016.

#### <북한매체>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력사적인 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를 벌릴 것을 호소」, 2016. 2. 26

『노동신문』, 「70일 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사상전의 포성을 더 높이 올리자」, 2016. 2. 29

『노동신문』, 「총정의 70일 전투 기록장에 영웅적 헌신과 눈부신 기적창조의 위훈을 아로새기자, 각지 농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들에서 쫓기모임 진행」, 2016. 3. 4

『노동신문』, 「침입식 정치사상사업으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 대표정신을 창조해 나가자」, 2016. 4. 4.

『노동신문』, 「70일 전투의 철야진군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기적창조로 영웅적위훈을!」, 2016. 4. 5.

『노동신문』,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총돌격, 총매진」, 2016. 4. 5.

『노동신문』, 「30만산 대발파 성과적으로 진행」, 2016. 4. 5.

『노동신문』, 「선군시대 인간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의 발현」, 2016. 4. 5.

『노동신문』, 「당 제7차 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에 계속 박차를!」, 2016. 5. 2.

『노동신문』, 「승리의 기적소리 높이 폭풍쳐 내달린다」, 2016. 5. 2.

『노동신문』, 「평성석탄공업대학에서 중요연구과제 빛나게 결속」, 2016. 5. 2.

『노동신문』, 「자강력제일주의를 틀어쥐고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200일 전투의 전군길을 힘 있게 다그치자」, 2016. 6. 9

『노동신문』, 「전당, 전국이 다시한번 총동원 앞으로」, 2016. 6. 15.

『노동신문』, 「농업생산의 과학화, 공업화를 추동해나가 더 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을」, 2016. 6. 16.

『노동신문』, 「신년사 김정은」, 2017. 1. 1.

『노동신문』, 「건설자재와 생활필수품 최우선적으로」, 2016. 10. 21.

『노동신문』, 「총정의 200일 전투의 격전장마다에서 기적창조의 열풍 세차게 끓어 번진다」, 2016. 10. 12.

『노동신문』, 「경제강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만리마 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 2016. 10. 21.

『민주조선』, 「올해 농사를 빛나게 결속한 기세로 다음해 농사차비를 힘 있게 다그치자」, 2016. 11. 27.

『민주조선』, 「200일 전투의 결승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다 총돌격 앞으로!」, 2016. 11. 27.

『민주조선』, 「수십동의 공공건물건설 완공」, 2016. 11. 27.

『민주조선』,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2016. 11. 27.

『민주조선』, 「부속품생산성과 계속확대 숙천군농기계작업소에서」, 2016. 11. 27.

『조선신보』,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70일 전투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근로자들과 일군들 앞으로 축하전문」, 2016. 5. 7.

『조선신보』, 「수요가 높은 《경흥맥주》 조선에서 새로운 떼기식 통맥주 생산」, 2016. 9. 2.

『조선신보』, 「제재 속에서의 부흥 조선경제, 그 활기와 저력(3) 호평을 받는 상품을 더 많이/ 구매자와 생산자를 잇는 백화점」, 2016. 11. 2.

『조선신보』, 「200일전투, 승리적으로 결속/ 당중앙위원회 보도문」, 2016. 12. 19.

#### <웹사이트>

DailyNK, <http://www.dailynk.com/korean/market.php?page=1&catald=#>, 검색일자: 2017.

1. 6.